

“꿈과 아이디어’ 만으로도 충분하다...광주라면”

한·베트남 합작 웹드라마 ‘어바웃 유스’ 나비효과 어디까지

청년영화키즈들 광주서 꿈 모색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공모로 출발
아시아문화교류 너머 아시아시장 넘바
1회 방영 이후 간접광고 요청 늘길
문화벤처 모델 실현 가능성 기대감

“훌륭하고 뛰어난 작품성을 가지신 분들이 자본 때문에 꿈을 접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광주에서는 경력이나 자본이 아니더라도 ‘꿈’과 ‘아이디어’ 만으로 작품활동을 할 수 있고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세상에 보여주고 싶습니다” -임수정 바닐라씨 대표

지역의 청년 영화인들이 유튜브 채널을 바탕으로 한·베트남 합작 웹드라마를 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바닐라씨(대표 임수정)라는 작은 드라마 제작사가 베트남 드라마 제작사와 함께 ‘어바웃 유스(About Youth)’라는 작품을 만들어 지난 14일 유튜브에 첫 선을 보였다.

어바웃 유스는 임수정이라는 20대 젊은 여성감독, 베트남과 협업·합작이 상징하는 아시아 문화교류, 아시아 기반 경제작물 생산·유통 등 다양한 문화적 경제적 의미를 제공해준다.

제작사 이름 ‘바닐라 씨’는 20대의 꿈을 그대로 담았다. ‘청년들의 이야기를 바닐라 라떼처럼 기분 좋게 달달함을 느낄 수 있는 영상콘텐츠를 만들어 보자’는 거

다. 임수정 대표(27)는 “보통 작품은 자본이 많은 스튜디오에서 지원받아야 계속 만들 수가 있지만 꿈과 아이디어가 선보일 수 있는 무대가 만들어져 있고 성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감사하다”며 “이번 베트남 진출을 계기로 베트남영상 콘텐츠 분야에서 자리잡아가도록 하고 베트남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바닐라 씨를 통해 함께 성장해 가기를 꿈꾼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출판한 바닐라 씨는 자본이 좌지우지하는 영화시장에서 패기와 열정으로 가능성을 찾아가는 일종의 문화 벤처다. 영화시장 자체가 형성이 안돼 있는 존립 자체가 불투명한 광주로 찾아온 것이다. 배경에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문화산업이 성장할수 있는 광주만의 여건이 자리한다.

바닐라 씨는 감독이자 대표인 임수정씨와 피디 이나건(33)을 주축으로 움직인다. 새로운 작업을 시작하면 스템을 새로 구성하는 프로젝트 팀 형식으로 운영한다. 지금까지는 수익을 내기보다 좋은 작품 만드는 것이 주목표다. 평소에 광고영상을 제작하거나 영화에 사용한 제품 제조회사에게 협찬을 받는, 간접광고 등으로 현상을 유지한다.

이나건 피디는 “지금 당장 수익성을 만들어내는 단계는 아니지만 지난 14일 한차례 방영된 이후 벌써 간접광고 요청이 들어오는 등 수익창출이 가능한 드라마 콘텐츠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작품을 발판 삼아 장기적으로 수익성 꿈꿔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바닐라 씨는 그동안 두편의 웹드라마 ‘연애인턴 최우



꿈과 아이디어를 찾아 고향 광주로 찾아온 청년 영화키즈 임수정 바닐라씨 대표(사진 오른쪽)가 한·베트남 합작 웹드라마 ‘어바웃 유스’ 편집작업을 하고 있다.

성’ (2017), ‘오늘의 주제’ (2018)와 웹예능 ‘오늘의 안주’ (2018) 등 3편의 작품을 만들었다. 앞 두편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공모선정 지원 작품이고 ‘오늘의 안주’는 보혜양조 제안으로 만들어진 예능 드라마다. 지난해 완성된 독립영화 ‘하와이 식당’도 개봉을 앞두고 있다.

어바웃 유스는 한국과 베트남의 청년들이 하노이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꿈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그린 청춘 로맨스 드라마로 광주와 베트남 현지에서 직접 제작됐다.

20대 꿈과 열정이 자산이라는 임 감독은 청소년시절 예능드라마를 보고 제작에 관심을 가졌다고. 이후 진로를 방송제작하는 PD가 되기 위해 대학진로도 서울로 향했다. 그리고 그 ‘꿈’을 광주에서 실현해보겠다는 소망이라고. 주덕진/자 mdeung@srb.co.kr



딜쿠샤

3·1운동 최초 보도 미 기자 가옥 100주년 맞아 복원공사, 공개

3·1운동을 해외에 처음으로 보도한 미국인 앨버트 테일러가 거주했던 가옥인 ‘딜쿠샤(DILKUSHA)’의 복원현장이 공개된다.

서울시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다음달 1일 딜쿠샤 복원공사 현장을 시민에게 최초로 공개하고 시민 참여행사를 연다. 시민 참여행사는 딜쿠샤를 포함한 덕수궁, 정동, 경교장 등 독립운동 유적 답사 형태로 진행된다. 답사는 덕수궁→정동→경교장→딜쿠샤 등 4개소 방문으로 진행된다.

딜쿠샤 주인이자 AP통신사 한국 특파원으로 3·1운동 독립선언서와 제암리 학살 사건 등을 외신에 처음으로 보도한 ‘앨버트 테일러’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답사 참가자는 초·고등학생 자녀를 둔 최대 4인 가족이다.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 참조. (<http://yeyak.seoul.go.kr>)

딜 무단 접거자가 지난해 7월 퇴거한 뒤 복원공사가 시작했다. 공사가 끝나면 독립운동 관련 전시관으로 2020년 정식 개방될 예정이다. 뉴스

본보 신춘문에 작가들, 잇단 출간 ‘눈길’

김용매 작가, 첫 소설집 ‘푸줏간 남자’
임성규 작가, 동화집 ‘형은 고슴도치’
자본주의 부조리 실상 고발·동심 담아내

본보 신춘문에 당선 작가들이 그들의 작품을 드러낸 책을 잇따라 출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해 본보 신춘문에 당선자인 김용매 작가는 최근 그의 첫 소설집 ‘푸줏간 남자’ (문학들·1만3천원)를 내놨다.

광주대평생교육학과를 졸업한 김작가는 지난해 본보 신춘문예에서 ‘봄’로 단편소설 수상 작가의 영예를 안았다.

‘푸줏간 남자’는 자본주의 사회 물신화의 양상들을 소설의 주요한 모티프로 차용하고 있다.

그의 소설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하나같이 모두 힘겹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주변부적 존재들이다.

또 자본이 신으로 숭배 받는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그로 인해 받은 상처를 안고 뼈뼉어진 인물이다.

그는 이 책에서 불행한 삶과 가정파괴는 ‘여자는 안 되고 남자는 그럴 수도 있다’는 무책임한 불륜에서 말미암아 종말로 치닫는 과정을 그린다.

김 작가는 “지난해 무등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된 후 작품활동을 다양하게 벌이려 노력했다. 당선 이후 내놓은 첫 소설집인 만큼 감회가 새롭다”며 “앞으로도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작품들을 다양하게 내놓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해 본보 신춘문예 동화부문 당선자인 임성규 작가가 최근 동화집 ‘형은 고슴도치’ (고야아침·1만2천원)를 출간했다.

임 작가는 이번 동화집에서 본보 신춘문예 당선자인 ‘형은 고슴도치’ 이외 ‘마법



김용매 작가 ‘푸줏간 남자’

신발을 신어봐’, ‘스티로폼 눈사람’, ‘민지와 할아버지 지팡이’, ‘우와 크다의 비밀’ 등 작품을 엮었다.

이번 동화집에서 임 작가는 아이들의 눈에서 다양한 세상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모 각 개인마다 숨겨져 있는 자아의 순수성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성,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방송통신대 국문과를 졸업한 임 작가는 지난 1999년 금호시조 대상을 수상하며 문단에 등단한 이후 꾸준히 시와 동화 부문 작품



임성규 작가 ‘형은 고슴도치’

활동을 벌여왔다.

또 지난 2014년 무등시조문학상 작품상을 수상했으며, 시조집 ‘배집’ 발간, 동화집 ‘엄지척! 아름다운 우리 서구에 놀러 오세요’ 등을 공동집필하는 성과를 드러냈다.

특히 지난 1월말에는 지역민과 함께 작품을 소통할 수 있는 강연회를 가져 눈길을 끌기도 했다.

임 작가는 “무등일보 신춘문예 당선작과 함께 그동안 집필한 작품을 엮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작품활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옥경/자 okkim@srb.co.kr

창작그룹 루트머지 초청 공연 21일 빛고을 국악전수관

광주 서구빛고을 국악전수관이 대중문화 예술 전문 사회적기업인 루트머지를 초청해 ‘겨울.봄.안녕’ 공연을 갖는다.

오는 21일 오후 7시 목요상설공연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에는 가야금 김다희, 해금 문보라, 퍼커션 박상민, 국악 보컬 서희선, 보컬 윤혜림 단원이 참여한 다.

겨울을 보내고 봄을 기다리는 마음을 루트머지의 대표곡 ‘바람의 노래’와 ‘달빛 아래 오동잎 모두 지고’, 해금독주 ‘바람이 전하는 말’, 25현 가야금 독주 ‘찬기파랑가’ 등 전통과 현대를 넘나들며 루트머지만의

특색과 멋을 살린 음악들로 알차게 구성되어 관객들을 찾아간다.

루트머지는 2008년 흥운진 대표가 창당한 그룹으로 한국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다양한 음악적 요소의 충돌과 소통을 통해 새로운 음악 또는 현재의 국악을 만들어 내고자 월드뮤직 그룹으로 출발했으며 전 예술 장르를 포괄하는 문화예술 체험 및 대중화를 위한 문화예술 전문 사회적기업이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궁금한 사항은 서구 문화체육과 국악전수관(062-350-4557)로 문의하면 된다.

유대용/자 ydy2132@srb.co.kr



루트머지 멤버

한국감성충전&웃음치료연구소 힐링콘서트

시티재활의학과 요양병원서

10년 이상 동안 광주지역 사회복지 시설을 돌아다니며 재능기부에 앞장서 온 한국감성충전&웃음치료연구소 양석승 소장이 장애인우를 위한 특별공연을 갖는다.

양 소장은 오는 22일 오후 2시30분부터 3시30분까지 1시간 동안 광주 남구 입하길 시티재활의학과 요양병원(송원대 정문)에서 제26회 시와 노래와 유머가 넘치는 양석승 힐링콘서트 ‘를 개최한다.

특별출연으로 서울 워커히호텔 악단장과 김희갑 악단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총장로 팝스토리 대표인 이찬우 재즈피아니스트가 팬플루트로 ‘조각배(이선희)’, ‘외로운 양치기(에드워드 시모니)’를 연주한다. 또 가수 오국태가 ‘사랑할 나이(박서진)’, ‘천년지기(유진표)’를 부르며 장애인우들의 흥을 돋울 예정이다.

이밖에 가수 조길숙씨와 월요포럼 뮤지스피치 회장 이건희씨의 노래가 이어진다.

유대용/자 ydy2132@srb.co.kr



양석승 힐링콘서트 자료사진

선조들은 ‘무등산’을 어떻게 그렸나

전대 국문과 한국고전문학 연구팀, ‘무등산과 고전문학’ 출간

광주의 표상이자 한국 문학의 보고인 무등산을 주제로 고전문학을 연구·분석한 전문서적이 나왔다.

전남대 국문과 한국고전문학 연구팀은 전남대 인문대학 코어사업단에서 운영하는 ‘2018학년도 코어사업 학술연구총서 발간’ 사업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전남대 한국어문학연구소 8번째 총서인 ‘무등산과 고전문학’을 출간했다.

무등산은 광주를 대표하는 광주의 표상으로, 때로는 영험한 능력을 갖춘 신령의 화신이자, 의리와 명분에 충실한 선비의 자태, 구도의 길을 걷는 수행자의 모습, 억압에 항거하는 민중의 몸짓으로 다양하게 인식돼 왔다.

그래서 무등산은 옛부터 문학의 보고로 다양하게 활용됐다. 해당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과 꿈이 담긴 옛 이야기를 비롯해 아름다운 풍광이 빛어낸 시와 노래는 물론 기행 체험, 계산 풍류의 산실이 돼 주었던 누정과 원림의 울림, 국난

을 당해 일어난 사람들의 분연한 외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표현됐다.

특히 ‘무등산과 고전문학’은 전남대에서 한국고전문학을 전공하는 국문과와 국어교육과, 호남학연구원, 국문과 강사 등 전문가 12명이 필자로 참여했다.

식영정과 소쇄원의 조영에 관련된 시문을 다룬 2편, 기사 작품인 ‘면양정가’, ‘성산별곡’, ‘석촌별곡’을 다룬 3편, 적벽 공간과 무등산 유람을 노래한 한시를 다룬 2편, 무등산 유산기를 다룬 1편, 무등산과 김덕령 설화를 다룬 3편, 고소설 ‘김덕령전’을 다룬 1편, 무등산권역의 실기 문헌을 다룬 1편을 차례로 배치했다.

필자들은 “‘무등산과 고전문학’은 무등산 누정원림시문, 가사, 한시, 유산기, 설화, 고소설, 실기를 망라했다”며 “이번 ‘무등산과 고전문학’ 출간이 무등산 고전문학 연구의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옥경/자 okkim@srb.co.kr



미디어아트 레지던스 참가자 공모

8기 입주 작가... 26일까지 접수

광주문화재단이 미디어아트 특화 레지던스 스튜디오 5개실에 입주작가를 모집한다.

미디어아트 레지던스 입주작가에게는 창작공간(스튜디오) 및 사무기구와 창작지원금·레지던스 프로그램(전시, 국내외 교류, 역량강화 워크숍, 결과보고 도록 발간 등) 등이 지원된다.

공동작품 제작, 기획전시, 시민 아카데미 등과 작가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미디어아트 특화 전문 레지던스로서 기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올해는 공동 커뮤니티룸 1개실을 신설해 작가들 간 협업 활동을 증진하고 창작 프로그램의 내실을 다지며, 또한 작가 및 비평가와 함께 지속적인 소통을 하는 비평가 매칭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작품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작가를 위한 비평서문도 제시할 예정이다.

접수는 20~26일, 입주를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www.gjcf.or.kr)을 참조하거나 이메일(kangmokey@hanmail.net)이나 전화(062-670-7493)로 문의하면 된다.

김옥경/자 okkim@srb.co.kr